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 만들어요”

광주 '신용동 반려견 순찰대'

市 공모 선정... 매주 토요일 순찰
CCTV·가로등 범죄예방시설 점검
시민들 격려와 사진촬영 이어져
“산책하며 건강·치안 함께 챙겨”

지난 19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특별한 마을 노안판들이 모여들었다. '신용동 반려견 순찰대'가 가을을 맞아 다시 마을 방범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걸음을 옮기던 시민들은 형광색의 조끼를 맞춰 입은 반려견들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거나, 반갑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신용동 반려견 순찰대는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가 광주시의 '시민 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6월 발족한 광주 최초의 반려견 순찰대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신용동 일대에서 방법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 여름 동안
은 반려견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견주와
주인들만 순찰을 이어갔으나, 최근 가을
날씨가 완연해지면서 이날부터 반려견들
도 다시 순찰에 나섰다.

이날 순찰에는 문인 북구청장, 북부경찰 범죄예방대응과·건국치안센터,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 주민 등 60여명과 반려견 20여마리가 참여해 약 1시간30분간 야간 방범 활동을 진행했다.

주인과 함께 방범 활동에 나선 반려견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운 듯 서로 연신 꼬리를 흔들고 코를 맞부딪히며 인사를 건넸다. 견주와 자유롭게 공원을 활보하던 반려견들은 본격적인 방법활동이 시작되자 질서정연하게 임무에 들어갔다.

순찰은 신용동 일대의 산책로와 공원
위주로 진행됐다. 견주 등 주민들은 경광
봉과 반려견의 목줄을 양손에 쥐고
CCTV, 가로등과 같은 범죄예방 환경 시

설물과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및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부모님과 함께 순찰에 동행한 아이들도 범죄 예방을 홍보하는 팜플렛을 나눠주며 구슬땀을 흘렸다.

순찰에 동행한 북부경찰 관계자들은 직접 동네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사용 시범을 보이면서 유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장진항 북부경찰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비상벨을 누르면 상단에 설치된 CCTV 화면이 바로 관제센터에 비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에 출동 명령이 내려진다”며 “유사사가 가까운 곳에 비상벨이 있다면, 전화 신고보다 비상벨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대응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비상벨의 사용방법과 위치 등에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널리 퍼뜨려 달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방법 활동 중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이야기꽃을 피우며 순찰을 이어갔다. 한 주민은 집을 든 이웃의 유모차를 대신 밀어주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효식(66)씨는 “이웃 간 작은 배려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순찰에 임하고 있다”며 “산책을 하며 건강도 챙기고 마을 치안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다”고 말했다. 귀엽게 생긴 ‘순찰개’가 지나가자, 가을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공원에서 운동하던 학생들은 주민과 경찰들에게 “마을 치안을 지키기 위해 매주 순찰을 돌아줘 감사하다”며 힘을 북돋았다.

김미경(58)씨는 “주로 순찰하는 공원과 산책로에는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싶어 매번 순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견과 산책하며 마을을 둘러 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주민들의



지난 19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광주 최초의 반려견 순찰대 '신용동 반려견 순찰대'가 방범 활동을 펼쳤다.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만큼 늘 책임감을 느낀다”며 “순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민들과 반려견이 점점 늘고 있어 보람차다”고 덧붙였다.

이날 순찰이 진행되는 동안 발견된 범죄 위험 요인은 없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친 반려견들은 주인이 건네주는 물을 마

시며 한숨을 돌렸다.

신용동 반려견 순찰대는 앞으로도 꾸준
히 마을 방범 활동을 이어가며,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
이다.

양홍규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장은 “협의회는 북부경찰·소방 등과 업무협약을

땀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율적 방법 모델을 구축해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주도형 안전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검찰,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음주운전 혐의 추가해 기소

광주 도심에서 음주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사상케 하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를 특가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도 범인도 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창인 A씨의 도피 과정에 대포
폰을 제공하고 이동 편의를 도우면서 도
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확보해 음주정황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를 역추산했지만,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경찰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수사, CCTV영상 분석 등 보안 수사를 통해 A씨가 운전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사고 당시 김씨가 운전전혀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검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술을 마신 채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도주했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바 있다.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도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A씨와 A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한 후속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민현기 기자

민현기 기자



진도아리랑물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오늘은 !!!
진도아리랑물





—
Organic
& Nature

우리가족 !!!
안심먹거리





—
Natural food
자연 식품



—
Fresh food
신선한 식품





진도아리랑물

* Natural Food Market *

www.jindoarirangmall.com



진도아리랑물

을 검색하세요!

고객센터
061.542.9631